

박지원 “국민의당-바른정당, 물과 기름”

유승민 공동입장 태극기 발언 “국민의당과 통합 반대 커밍아웃” 해석 “北 인공기 들고 입장하면 세계만방에 분단 과시 하지는 말인가” 일갈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16일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남북 선수단 공동입장 시 한반도기 대신 태극기를 들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유 대표의 보수본색 발언은 ‘우리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반대한다’는 커밍아웃”이라고 규정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이 공동입장을 하면서 남은 태

극기를 북은 인공기를 들고 입장하며 세계만방에 분단을 과시하지는 건가. 우리나라에서도 인공기가 필적하는 게 보수의 태도냐”라고 일갈했다.

그는 “한반도 단일기는 1991년 일본 자바세계탁구경기에서 처음 사용됐고 2000년 시드니올림픽 공동입장 때 제가 당시 문화관광부장관으로서 김정일 위원장과 단판

해 사용했다”며 “이후 남북 공동행사에 한반도기를 사용하는 것이 관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도 김정일 위원장과 평양에서 회동 후 상암구장에서 있었던 남북 축구시합에서 일부 응원팀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것에 대해 ‘왜 태극기를 흔드느냐. 한반도기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화를 내며 정몽준 당시

축구협회장에게 강하게 항의했다”며 “이를 박근혜 비서실장인 유 대표께서 절대 모를 리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표는 결론적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물과 기름”이라며 “국민의당을 쪼개는 바른정당과 합당은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유 대표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남북 선수단 공동입장 시 한반도기 사용을 거론한 데 대해 “남남갈등을 대한민국 장관이 부추기고 있다. 도 장관은 이 발언을 취소하고 태극기를 들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

“개헌이 사회적 합의...반대? 전두환 호헌세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권한 분산·책임총리제 내실화가 바람직”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헌법개정(개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개헌이 사회적 합의인데 호헌을 하겠다는 것은 전두환 신군부 호헌 세력과 마찬가지로”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내로 당론을 정해 2월에 여야 합의를 도출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야당의 합의가 절대 필요하고 그해야 하지만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는 대선과정에서 각당 후보가 약속한 것이고 국민이 동의한 사회적 합의”라며 “촛불 혁명이 대선을 통해 어느 정도 개혁의 문을 열었다면 (이제) 개헌으로 구체적 표현이 되어야”고 강조했다.

설명했다.

추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는 게 나올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사실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그 시스템에 따른 자기 직분상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않고 그것을 행정 국가 책임자에 미루면 그런 제왕적이라고 할 수 없다”며 “그런 의미에서 ‘제왕적’이란 단어 쓰임이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지금은 책임총리제, 헌법상 총리 권한을 실질화하기 위해 지금 정부에서도 총리에게 내각의 실질적 권한을 주는 것이고 대통령은 가급적 위치, 남북관계에 대해 집중해 헌법에 기반한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추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어느 정도 분산할 거냐 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 뜻이 우선이다”며 “국민의 합의안이 도출되길 바란다. 국회 추천 총리에게 내각 인사권을 주겠다는 이원집정부제는 현실에 맞지 않고 국민 대다수가 동의도 하지 않는다. 책임총리제 내실화 방안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정치적 해법’ 발언에도 安 ‘비례 출당불가’ 입장고수

“국민의당 내부 문제 잘 정리되면 좋겠다 취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6일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국민의당 내부 갈등을 겨냥해 ‘정치적 해법’을 거론하며 사실상 합의이혼을 촉구한 데 대해 “국민의당 내부 문제가 잘 정리되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

라고 여전히 비례대표 출당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 강연에서 “직접적으로 바른정당에서 그렇게(합의이혼을 하라고) 얘기하면

않은 것으로 들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합의이혼’에 대한 입장을 재차 묻는 기자들 질문에 “전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그는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남북 선수단 공동입장 시 한반도기 대신 태극기를 들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우리가 전국민적 열

망으로 함께 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한 게 아니겠나. 그러면 우리나라의 상징을 반드시 보일 필요가 없다”고 두둔했다.

그는 아울러 박지원 전 대표가 유 대표의 발언을 두고 ‘남은 태극기, 북은 인공기’를 들고 입장하며 세계만방에 분단을 과시하지는 건가’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인공기 입장에 대해선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

홍준표, 조국 향해 “사시 통과 못한 분풀이로 권력기관 개편”

“D, 한반도 핵전쟁 위험 출발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자신이 사법시험(사시)을 통과하지 못한 분풀이로 권력기관을 개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권력기관 개편안을 자세히 보면 사시를 통과하지 못한 본인의 하인을 뽑기 위해 개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본인이 사시를 통과 못했으면 그만이지 권력기관 개편하는데 검찰 힘을 빼고 있다”며 “저도 검찰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냥개 노릇을 하는 검찰도 있고 정의로운 검찰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개편에 대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면 대북 감시기관인 국정원의 존재 가치가 없다”며 “경찰에 안보수사권과 검찰수사권을 준다는 것은 경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적절한 견

제와 균형이 유지 돼야하는데 한 기관에 몰아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을 북의 위장평화 공세라고 규정하고 문재인 정

부를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올림픽을 세계 스포츠 행사로 하지 않고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휘둘러 정치쇼로 남북정치회담을 하고 있다”며 “이침 언론을 보니 북한의 현충일 이야기

만 하던데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위장평화공세에 두번이나 속아봤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D(김대중)는 남북정상회담 정치쇼를 이용해서 노벨평화상까지 받았다”며 “한반도를 핵전쟁 위험에 몰아 넣은 출발점이 D”라고 했다.



기념촬영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현안경청간담회에서 우원석(오른쪽 다섯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주영(오른쪽 네번째)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역구감,미래창조,정몽준직립 전한 062)224-5800
湖南新聞 팩스 062)222-5548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문의전화
 “무료상담환영”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